

## 약속 이행자(렘 강해 설교 30)

성경말씀: 렘35:1-19

바빌론 군대들의 침략, ‘공성퇴’ 소리,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함.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게 네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3)  
“나를 부르라.” ‘cry가 아니라 call이다.’ any call 전화해라. 간절하게 구하라.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일들, 강력한 일들을 뜻한다.  
“어려운 일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하렴. 내가 들어주고 도와주마.” 기도 응답의 약속,  
능력 있는 일들: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들 용서, 가나안 땅의 회복, 예루살렘 성전 건축, 메시아 재림  
해와 달과 별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심.  
우리 신약성도들은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다(계21-22). 새 예루살렘, 믿음의 선진들이 고대하  
던 곳, 눈물, 사망, 슬픔, 울부짖음, 아픔 No!!(계21:3-4, 22-23; 22:3-5)

### 35장 개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함(1절).

목적: 레갑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하여 교훈을 얻게 하는 것

대언자는 레갑 사람들을 주의 집의 여러 방들 가운데 하나로 데리고 들어가 포도주를 마시게 함  
구체적으로 포도주가 담긴 단지들과 잔들을 내놓고 마시라고 함(5).

그들이 안 마심, 이유,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마시지 말고 또 텐트에 살라고 명령했다(6).

그래서 우리 레갑 사람들은 남녀노소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텐트에 산다(8-10).

바빌론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머물고 있다(11).

주님의 말씀: 레갑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의 명령을 지키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

내가 대언자들을 보내고 보내고 하지 아니 하였느냐?(13-1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내리겠다고 한 재앙을 내리겠다(17).

예레미야의 축복: 너희가 조상의 명령을 지켰으니 자손이 무궁하겠다(18). <약속 이행자>

### 레갑 사람들

레갑 사람들은 유목민처럼 텐트를 치고(6절) 나사르 사람들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

레갑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님. 모세의 장인 이드로처럼 겐 족속이었음. 유다 지파에 속함(대

상2:55),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용맹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를 기억함  
약 300년 전에 이스라엘에는 아합이 치리하면서 바알 숭배가 극에 달하였음.

아합의 아들 요람이 치리할 때 엘리사는 시리아와 싸우기 위해 라못길르앗에 있던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되게 함. 이에 예후는 예스르엘에서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인 뒤 수도인 사마리아로 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요나답)을 만나 그를 수레에 태움(왕하  
10:15-16).

예후는 백성에게 존경받는 그를 자기편으로 삼고 바알의 집에 모인 바알의 대언자들을 다 죽임. 이 일을

집행하며 도와준 사람이 요나답(왕하10:23), 이스라엘에서 그의 용기와 지혜는 잘 알려져 있었다.

그의 아버지 레갑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요나답의 뜻: ‘여호와께서 풍성하게 주셨다’

레갑 사람들의 조상인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유목민으로 텐트에 살 것을 명령함.

그 이후로 300년 동안 이들은 조상의 명령을 지키다가 지금 바빌론 군대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피신함.

1. 이들은 극한 상황에서 시험을 받았다. 주의 집으로 불려가서 대언자에게서 시험을 받았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포로가 될 시점, 이미 텐트에서는 살지 못함,  
하나님의 집, 더욱이 대언자의 요청,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

2.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확신을 버리지 않았다(6). “로마에서는 로마 사람처럼 행하라.”는 속담이  
있다. 특히 남자들: 군대, 회사 술, 음담패설, 아이들: 학교 cheating, 욕, 여자들: 동창회

a. 우리는 무슨 확신을 가지고 사는가? 성경의 사람들은 확신의 사람들이었다.

b. 히11:24-26의 모세 이야기

- c. 바른 말씀(진리, 믿음, 소망, 위로)
  - d. 바른 교회(성화)
  - e. 바른 가정(하나님의 뜻)
  - f.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에 입각한 통일(이 나라): 딤편2:1-3
3. 이들은 자기 조상의 말에 확신을 갖고 순종하고 헌신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불신을 책망하는 본보기가 되었다(14).
- a.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어린 나이에 바빌론 포로 생활, 바빌론 궁에서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람. 다니엘은 바빌론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함(단1:8).
  - b. 느부갓네살의 금 형상,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였으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지 않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안 하셔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단 3:17-18)
  - c.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바르게 깨끗하게 살면 그것이 본보기가 된다.
4. 이들은 하나의 명령을 받고 그것을 끝까지 지켰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 대인자들을 통해 수십 차례 같은 말들을 들었으나 거부하였다(15).
- a. 그 결과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이 훼파되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

### 우리는 어떤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10가지 명령을 주셨다. 4, 6개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신약시대에 이것을 두 개로 요약해 주셨다(마22:34-40).

1.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 a. 너희 앞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 명예, 재물, 학식, 배우자, 자식, 교회, 목사
  - b. 창조주로 인정해야 한다. 주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구원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 c.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그분의 모든 것을 성경 말씀 안에 주셨다. 이 책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계획, 사랑, 공효, 공의, 심판, 진리를 사랑해야 한다. 또한 보존된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후대에 보존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2.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 a. 배우자와 자식들,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 말세는 본성의 애정이 실종되는 시기, 가정을 이루고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이다.
  - b. 예수님은 구약에 없던 교회를 세우셨다. 이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을 두셨다. 강한 자, 약한 자, 남녀노소, 갓난아기, 먼저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명령이다.
    - (1) 가장 큰 명령(요13:34-35)
    - (2) 제럴드 스티치의 사랑의 짐: 교회가 해야 할 일
  - c. 우리 주변의 신자들을 사랑하는 것: 신자들 가운데 종교에 얽매어서 교회와 목사의 종으로 사는 많은 성도들을 살려내야 한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였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
  - d.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미디어 사역, 선한 행위
  - e. 나라 사랑: 민족의 분열, 사상의 분열, 지도자들의 분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 명령 준수에 따른 축복

조상의 명령에 순종한 레갑 사람들은 땅에서 보상을 받았다(18-19).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영존하는 생명을 가져온다(요3:34-36).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의롭게 심판하신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갚으신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사랑하라.

가족, 교회, 이웃(불신, 신), 나라를 사랑하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살롬!